

‘광주형 일자리’ 놓쳐서는 안 된다

10월 ‘골든타임’ 절반 지나
현대차 완성차 사업 무산 위기
지역 단체 중심 불씨 살리기
“미래 먹거리 노동계 참여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건립 사업’이 무산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광주에 투자 의향을 제출한 현대자동차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등 노동계가 불합치 이유로 내놓은 초임 연봉에 대한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지역 각계는 물론 시민 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3면>

자동차 공장 및 작업인 설립이 부품산업이 광산업, 디자인산업, 가전산업 등 기존 지역산업과 시너지를 발휘하며, 지역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돌파구가 없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현대차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지역노동계의 이탈로 인해 점차 동력을 상실하면서 이달 말에 사실상 협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7일 광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내고, 기업 유치에 나서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30일 넘게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당초 광주시에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10만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신속해 2020년부터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 판매하려 했었다. 그러나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현대차 측은 투자자를 결정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3000여여원을 들여 빛그린산업단지에서 조성하고 있는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빛그린산업단지 전경.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노조 등 현대차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시는 현대차의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등 제2, 제3의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역노동계 달래기’, ‘현대차 불합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진전은 없는 상태.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려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깝게 현재 상황만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광주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13개 광주 직업계고 교장단, 광주지역 5개 구청장협의회 등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노조

의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역노동계가 노동계 입장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지역 현실을 고려해 현대차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미국, 유럽 주요 도시는 물론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산업 연관 효과 등을 위해 대기업 유치를 나서고 있는데, 광주에 투자 의향까지 보인 세계 굴지의 자동차 대기업을 불합치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 경제는 비정규직 비율이 36.9%에 달하고,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은 310만 2000원으로, 전국 평균(352만1000원)보

다 41만9000원이나 적다.

시는 지난달 19일 현대차와 주 44시간 근무에 초임 연봉 3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에 합의했으며, 현대 측으로부터 연간 최소 7만대 판매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상태다.

이병훈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지역 전체를,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광주를 떠나는 현실을 직시하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 내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당의 ‘몽니’

위원 추천 미뤄 5·18 진상조사위 한 달 이상 출범 못해
“민주·바른미래 추천위원들 먼저 임명 개문발차 나서야”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이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정당들은 모두 조사위원 추천을 마친 상태.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 시한(지난 달 14일)이 한 달이나 지나도록 진상조사위 자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근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과 관련, “당내 추천위가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독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야 조사위원 추천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야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비상설 특위 위원 배분을 놓고 3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는 아무리 빨라도 국감 종료 전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적어도 3개월 이상 진상조사위 출범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추천할 사람을 못 찾은 것인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태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진상조사위의 개문발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추천 3명을 빼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을 우선적으로 대통령에 임명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9명의 위원 가운데 국회의장 추천 1명을 포함하면 6명이 된다는 점에서 위원회 출범이 가능하고 이사회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광주시민과 함께 강력한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으며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달 내에 조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 앞에서 농성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부, 유류세 한시 인하 검토 ... 10% 인하 땐 휘발유 1당 82원 ↓

정부가 조만간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서 유류세 인하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하는 시기는 연내에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누리게 되지만 특히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용 검토를 마치고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인하) 시기는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고 설명

했으나 인하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가변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유류세의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1당 82원, 경유는 1당 57원, LPG 부탄은 1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목포 사립고에서 또 시험지 유출 ▶6면

다시 부르는 임 행진곡 리미트세제 ▶18면



KIA, 3년 연속 '가을 잔치'

내일 넥센과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 ▶20면

♪ 송학산 높은정기 우러러 보며~

대촌중학교 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

일시 ▶ 2018. 10. 21(일) 08:00~
장소 ▶ 모교 운동장
전화 ▶ 010-3610-4706

대촌중학교
총동문회장 남순복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주름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나이 들어 보일까요?
주름, 기미, 잡티는 쉽게 기릴 수 있지만, 힘 없이 처진 얼굴탄력은 숨길 수 없죠
뿌리부터 인까지 인삼에너지를 담은 변 캄솔에센스가 약해진 탄력 지지 구조를 강화해주는 자음생에센스-
이제, 시간의 흐름과 외부 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Reductive Object © Kimsooja Studio LLC
*설화수, 플레그시스트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_official •플레그시스트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